

오영진 일기 연구*

-1958~1959년 오영진 일기를 통한 한국영화계의 문화현실 소고(小考)-

김윤미**

〈차례〉

1. 서론
2. 1958, 오영진 일기를 통해 본 아시아재단 활동과 정훈국자문위원 활동
 - 2.1. 아시아 영화인의 연대 제의
 - 2.2. 정훈국자문위원 활동과 군용영화제작 기반 조성
3. 1959년, 표절시비와 미국 체류기
 - 3.1. 영화 <십대의 反抗>, <인생차갑>의 표절시비와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 3.2. <시집가는 날> 브로드웨이 진출시도와 성화저작권 문제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58년 7월 17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 오영진에 의해 기록된 일기를 고찰한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1958년에서 1959년은 한국영화의 중흥기에 속하며, 영화평론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오영진이 한국영화의 국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오영진은 문화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영진의 일기는 한국영화연극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정치에도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1958년 일기에는 아시아재단과 국방부 정훈국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와 군용영화 제작의 기반을 조성했던 오영진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는 아시아 재단에 보내는 편지 초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영진은 이 편지에서 “아시아영화제에 상영되는 작품은 그것을 상영하는 지역의 토어로 더빙”되어야 하며 “영화예술과 기술의 발전 향상과 공동 연구를 위한 특종의 institute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기에는 군부대 시찰경험과 민간영화기획사와 국방부의 만남을 주선하며 군용영화제작환경의 조성을 마련하는 과정도 기록되어 있다.

1959년 오영진의 일기에는 <십대의 反抗>과 <인생차갑>의 표절시비,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정,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의 원작시나리오를 빼앗긴 것에 대한 울분비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화계에 만연한 외화 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오영진이 역으로 표절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그의 문제제기는 외화와 한국영화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1959년은 표절논란으로 영화계에서 오영진의 피해의식이 가중되는 시기였으나 젊은 비평가인 이영일, 호현찬과 함께 새로운 영화운동 모색에 오영진이 동참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오영진은 뉴욕에서 영화교류를 위해 군인출신 맥카시를 만나거나 영화 <시집가는 날> 판매를 위해 콜롬비아사 등 영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을 일기에 기록했다. 브로드웨이에서의 상연을 위해 <시집가는 날>의 뮤지컬 각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와 성화저작권 문제해결과정에서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실망감을 일기에 드러내기도 했다.

오영진은 일기를 자신의 “인생을 위한 증빙서류”로 보았고, 그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reporter 입장”으로 일기를 기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외부의 문화를 전유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오영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분기점이 오영진의 일기에서는 1958년에서 1959년까지다. 앞으로 이 시기의 전과 후에 기술된 오영진의 일기연구가 보강된다면 1958년에서 1959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한국영화연극계의 문화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시집가는 날>, <십대의 反抗>, 오영진 일기, <인생차갑>, 정훈국 자문위원, 한국영화

1. 서론

오영진(吳泳鎭, 1916~1974)은 해방 전에는 일어로 시나리오를 쓰고 해방 후에는 아시아재단을 통해 여러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했던 인물이다. 그의 이런 언어실력은 해방 전에는 일본과 해방 후에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 매개는 영화였다. 일어와 영어에 능통했던 오영진은 해방 전에는 일본 조선영화사의 촉탁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정하의 국방부 정훈국 영화반 및 해군 정훈감실 촉탁으로 활동했다. 일본과 미국의 문화선전부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계기는 그가 일어와 영어로 글을 작성하고 현지인으로 오해될 정도로 능숙한 회화실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영진은 ‘통역계급’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5S1A5A8014942)

** 계명대학교 조교수

1) 통역계급이라는 말은 영국인들이 인도를 통치할 인도인을 영국식으로 교육시킬 필

오영진은 서북 기독교 출신으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했고 1937년에 이광수가 주필로 있던 『조선일보』를 통해 영화평론가로 데뷔했다.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영화 제작사 ‘동경발성’에서 시나리오와 조감독수업을 받았고²⁾ 1940년 ‘조선영화사’ 촉탁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문학』에 두 편의 일문 시나리오 <배뱅이굿>과 <맹진사댁경사>를 발표했다. 일본 식민지하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오영진은 해방 후 북한에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부친 오윤선 장로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민주당’을 창당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1947년 월남했다. 월남기독교인의 중심지인 영락교회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오영진은 1953년 미 국무성의 리더스 그랜트로 미국을 다녀온 후 반공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영화예술협회를 창립하는 등 활발한 문화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했는데 제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극작가, 영화평론가, 『문학예술』잡지 발행인, 영화 제작자, 조선민주당 정당 정치인 등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가 남긴 일기는 당대 한국 영화연극계의 제작 시스템,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로 재편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미국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그리고 이러한 문화정치의 변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그동안 오영진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 극작가로 국문학분야에서 주로 다뤄졌으나³⁾ 2000년대로 오면서 그에 대한 연구영역은 영화 활동과

요성을 언급한 토머스 배빙턴 매컬리의 진술에서 나온 것으로 영국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되고 생산된 통역 계급으로서, 이러한 중간 집단은 영국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인도의 민족 공동체 형성을 주도한 집단으로 발전 한다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정체성』, 문학과 지성사, 2002, 212면)

2) 오영진이 영화를 배웠던 ‘동경발성’은 일본의 문화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곳이며, ‘일본’이라는 국민 국가의 표상을 영화를 통해 형성하고, 일본 군부와 손잡고 조선에 진출하여 선전 영화를 활발하게 만들었던 영화사이기도 하다. (김윤미, 『드라마와 민족표상』, 연극과인간, 2013, 14면)

3) 서연호, 『오영진의 작품 세계』, 『한국연극론』, 대광문화사, 1976; 유민영, 『한국 현대 희곡사』, 기린원, 1988; 이미원, 『오영진 작품 세계와 민족주의』, 『한국연극학』 제14호, 한국연극학회, 2000.

식민지시기 활동영역으로 확장되어 갔다⁴⁾. 그의 작품에서 ‘전통’이라는 일관된 주제는 해방 전 민속이 해방 후 전통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영진이 유일한 매개자였다는 연구결과가 형성되었다.⁵⁾ 이전 연구에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전통의 현대화’는 그를 민족주의 극작가로 명명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나 제국의 문화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그의 활동들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고⁶⁾, ‘정치와 전통이라는 두 축의 아이러니’가 빚어내는 양가적인 오영진의 활동이 연구자들을 미궁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진의 작품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호출되고 있는데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진의 일기 연구는 오영진 연구 뿐 만 아니라 한국이

4) 최승연, 『오영진의 <맹진사댁경사>개작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2005; 이영재, 『제국 일본의 조선 영화』, 현실문화, 2008, 258면; 김윤미, 『오영진 드라마에 나타난 민족 표상연구-오영진의 영화론, 시나리오, 희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1.

5) 권오만, 『오영진의 3부작에 대하여』, 『국어교육』, 제18-20권 합병호; 백현미, 『한국 희곡의 지평』, 연극과 인간, 2003; 『한국 연극사와 전통 담론』, 연극과인간, 2009. (초기 연구로는 권오만의 논문을 들 수 있고 이후 연구로는 백현미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연구자가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백현미는 제국주의의 자장아래 고안된 민속이 탈식민주의 과정에서 전통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연속성을 주시한다는 점에서 앞의 논자와 차이가 있다)

6) 권두현, 『해방 이후 오영진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김윤미, 『오영진의 1940년대 초기 시나리오에 나타난 ‘민속’의 의미』, 『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영화 <사랑과 맹서>와 오영진의 취재기 <젊은 용의 고향> 비교연구』, 『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이상우, 『월경하는 식민지 극장: 다이글로시아와 리터러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오영진의 글쓰기와 민족주의: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이주영, 『오영진의 역사극 연구』, 『어문논집』,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김옥란, 『오영진과 반공.아시아. 미국』, 이승만 전기극 <청년>, <풍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김윤미, 『제국과 로컬, 오영진의 조선영화론』, 『드라마, 내셔널 서사, 문화콘텐츠』, 일송, 2013.

7) 양승국, 『전통과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두 축의 아이러니』, 『문학사상』, 7월호, 통권 201호, 문학사상사, 1989.

라는 국가이데올로기의 복잡성을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시각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오영진 초기 연구자로 박사논문을 발표했던 한옥근은 오영진의 생애와 사상, 희곡과 시나리오, 영화론 등을 개괄 정리했는데⁸⁾ 그는 서문에 오영진의 일기를 구해서 연구해야 비로소 오영진 작가론이 완성된다고 밝혀놓았었다. 이미 오래전에 오영진의 일기는 오영진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계에 언급되고 있었다. 이에 오영진 일기를 발굴하여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영진이 사용한 복잡한 언어를 해독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쳐야 했다. 오영진은 1947년부터 1974년, 이대 정신병동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일기를 썼다. 필기체로 쓴 영어와 한자를 병용하여 일기를 썼고, 말년에는 한글이 일기에서 3분 2를 차지할 정도로 한글로 일기를 썼다. 더구나 오영진이 사용한 한자는 약자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글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했으며 해독하기 힘든 글자가 많아서 ‘*’ 표시로 남겨놓아야만 했다.

본고는 오영진의 활동영역이 영화와 연극, 문화정치 등 최고의 정점에 달했던 1958년과 1959년에 주목하였다. 1958년 7월 17일 체현절에서 1959년 12월 31일까지 쓴 오영진의 일기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기가 한국영화의 중흥기에 속하며 오영진이 한국영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1957년에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30편 안팎이었는데 1958년에는 74편, 1959년에는 111편, 1960년에는 87편의 작품이 만들어졌다.⁹⁾ 그는 양적으로 늘어난 한국영화 작품에 질적 수준을 요구하기 위해 영화계에 만연한 외화표절 문제를 제기했는데 역으로 그는 표절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의 문제제기는 외화와 한국영화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영화평론가 이영일은 당시 표절논란의 영화들에 대해 외국영화와 한국영화의 영향 관계

8)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9) 김화, 『이야기한국영화사』, 하서, 2001, 255면.

는 규명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내용이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 한국 리얼리즘에 깊은 영향을 준 작품으로 오영진이 쓰고 김기영이 감독한 <십대의 반항>을 예로 들었다. 이는 새로운 영화의식을 깨우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1950년대 영화가 끼친 큰 영향이라고 이영일은 평가했다.¹⁰⁾

한국영화의 중흥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 오영진은 동아일보에 한국영화를 결산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이 글에서 그는 당시 “한국영화의 50%가 일본 영화의 스토리 내지 시나리오를 그대로 도둑질해 온 것”이라는 제작자의 말을 예로 들며 “우리 영화의 제작본수가 50%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망신은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1958년 한국영화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영화제 심사원으로 활동했던 오영진의 이러한 비평은 영화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영진이 한국영화계를 향해 던졌던 비평이 부메랑이 되어 다음해인 1959년 그에게 돌아왔다. 그동안 발표한 오영진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오영진의 일기에는 <인생차압>, <십대의 반항>에 따른 표절 시비, 이승만 일대기 영화관련 일화, 정훈위원 활동과 당대 영화제작 시스템과 해방 후 지식인의 미국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오영

10) 한국예술연구소 편, 『이영일의 한국영화사 강의록』, 도서출판 소도, 77면

11) 더불어 그는 새로 생긴 두 단체 「씨네.팬」과 「시나리오작가협회」에 대해 언급하는데 “공정한 썬리리즘이 없는 곳에 공정한 비판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젊은 썬리리스트의 「씨네.팬」그룹도 있으니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제작자들이 외국의 시나리오를 도둑질해온다든가, 또는 그들의 작품을 표절당하는 것에 대한 규탄이나 발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임 인상을 위한 스트라이크 전야의 노동조합처럼 표절에 대한 대책이 없고 시나리오 집필의 최저임금만 책정해 놓은 「시나리오작가협회」를 비평했다. 오영진의 비평은 감독에게도 가해지는데, ‘이강천은 연출로 보아 타락했고, 신상옥은 불란서 영화만 우려먹고, 김성민은 후퇴했다’고 냉혹하게 평가한다.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1958-1961)상』, 공간과 사람들, 2008, 140면)

진은 미국에서의 공식일정을 기록할 때 영어를 일상어처럼 한글과 함께 기술했다. 해방 전 일어로 시나리오를 창작했던 오영진이 해방 후 영어로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일기에 영어를 일상어처럼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일기쓰기는 오영진에게 ‘지배자의 언어를 자기의 언어로 전환하는 자기교육의 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는 ‘외부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던 오영진의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오영진의 일기(1947년-1974년)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므로 앞으로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당대를 구성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미시사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글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고찰될 것이다. 사회를 세밀하게 관찰하되 그 연구 대상의 범위를 다양하게 잡는 것이다.¹²⁾ 이러한 관점은 이전의 역사 연구에서 주목되지 못했던 본질적인 여러 현상들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기에 대한 미시사적 연구는 한국의 영화연극, 문화정치와 관련된 기존 서술에 대한 사실 관계의 여부를 밝혀줄 것이다.¹³⁾ 그러므로 이 논문은 오영진 일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해제형식의 글이 될 것이다.

2. 1958년, 오영진 일기를 통해 본 아시아영화인과 군용영화제작 배경

오영진이 1958년에 쓴 일기에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나타나는데 아시

아재단 부회장으로서의 활동과 정훈자문위원 활동이 그것이다. 1958년에 오영진은 제5회 아시아영화제 심사원으로 참가하는데 이는 일 년 전, 제4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시집가는 날>로 최우수 희극상을 수상한 경력 때문이다. 한국영화사상 처음으로 해외 영화상을 수상한 기록을 세운 오영진의 <시집가는 날>은 1943년 『국민문학』 4월호에 실린 일문시나리오 <맹진사댁경사>가 원작이다.

1958년에 오영진은 국제 극예술협회(III) 한국본부 부위원장에 피선되었고 피난민 정착지 시찰과 동부 휴전선을 시찰했다. 그리고 시네마 팬클럽 회장에 피선되었다.¹⁴⁾ 오영진의 이러한 공식적인 활동이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1958년에 오영진이 쓴 일기에는 당시 군부대의 상황과 군인들의 문화적 환경이 나타나 있으며 그들을 위한 군용영화의 필요성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1958년은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재건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로 문화적인 욕구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오영진의 행보는 한국영화의 국제화와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국내 문화정책의 중심에서 활발한 영향을 미쳤다.

2.1. 아시아 영화인의 연대

7월 17일 제헌절에 오영진은 아시아재단에 보낼 편지 초안을 일기에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일기장에 먼저 정리하는 편이었다. 이 편지글은 그의 일기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1960년 6월 3일 『조선일보』에 「아시아친구들과의 대화-고루 함께 부는 남풍-」이라는 상징적인 부제가 달린 글로 새롭게 정리되어 발표된다. 두 글 사이에는 일 년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는

12) 위르겐 슐름본 편, 박승중 외 옮김,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2001, 32면.

13) 이효인, 『윤봉춘 일기 연구-1935-1937년 윤봉춘 일기를 통한 조선영화계의 분석』, 『영화연구』 제55호, 한국영화학회, 2013, 455~486면 참조.

14) 이근삼, 서연호 편, 『오영진 전집』 5,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413~415면.

데 일기에 정리한 오영진의 글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영진은 “4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5회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에 심사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던 기쁨”을 표현하면서, “아시아 민족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제작자 연맹 회원국의 작품이 상영되는 지역의 토어(土語)로 더빙되어야 함”을 편지 초안으로 일기에 작성하였다. 그는 “Asia 전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화가 도시를 무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영화 선진국의 모방”이라며 낙후된 아시아영화계를 위해서는 “영화예술과 기술의 발전 향상과 공동 연구를 위한 특종의 institute를 설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일본 영화의 기술적 우위성”과 “인도영화에 나타나는 Soviet Russia 식의 몽타주와 표현양식 스타일”을 지적했다.

오영진의 편지글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 영화의 대부분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오영진은 해방 전에 일본의 도호 영화사 전신인 P.C.I 시나리오 연구회에서 국가이미지를 위해 도회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려는 일본 군부와 손잡은 일본영화계가 당시 시나리오 작가의 육성을 통해 시도했던 것이었다.¹⁵⁾ 이러한 시나리오 교육을 받은 오영진이 의도적인 도회 풍경을 거부하고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영화인에게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시아 영화계에 출품된 35편의 영화가 서구 영화에 비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영화계가 서로 협력하여 단기간에 기술과 예술로서 향상된 영화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과 예술로서 향상된 아시아 영화는 미국과 서구 지역에 널리 전파될 것이고 아시아인은 영화를 통해 접촉하지 못했던 서구 문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심을 가

지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오영진은 일기에 작성했던 편지글 초안을 일 년 후인 1960년 6월 3일 『조선일보』에 「아시아 친구들과의 대화-고루 함께 부는 남풍-」이라는 글로 발표한다. 오영진은 자신의 의견이 비전문가의 소감임을 밝히며 “나의 사사로운 노트에만 적어두고 간직하기가 마땅치 않아 일부를 공개한다”고 서두를 시작한다. 오영진은 아시아인에게 식민지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인도인이나 그 밖의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데 그는 이런 질문을 일본인 대표에게도 한다. 아시아인의 식민지 경험과 식민강국인 유럽과 일본, 미국에 대한 여러 아시아인의 각자 다른 감정의 차이를 오영진은 식민지경험의 유무와 인식에서 찾았으며 반공이데올로기로 재편되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논의를 제기한 것이 이전 일기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오영진은 국제적인 행사 외에도 당시 한국영화계에서 영화제 심사위원이자 시나리오 작가, 비평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심지어 자신의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교부에서 수여하는 국산우수영화에 <시집가는 날>, <인생차갑>이 선정되기도 했고 그의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었던 감독들은 오영진의 작품을 기반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당대 유명한 배우와 감독들이 오영진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얻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다.

오영진의 일기에는 당대 영화계 인물과의 만남과 그 인물에 대한 짧은 논평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시네마코프라’는 <생명> 시사회에 참석한 오영진은 이강천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평을 하거나(7월19일), 조민당(조선민주당)에 들러 “남산에서 하는 중북 북노리”에 참석(7월 22일)하면서 원로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살짝 드러내기도 한다. 오영진은 “Cin-pen 주최로 열린 Non-theatrical Film에 참석하여 영화를 보고 이 형표의 <제주도>를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 출품하도록” 권고(7월 날짜 지워짐)하기도 한다.

15) 김윤미, 「제국과 로컬, 오영진의 조선영화론」, 『드라마, 내셔널 서사, 문화콘텐츠』, 월송, 2013, 59면

이영일은 ‘시네펜클럽’을 4.19혁명 이후에 자신이 결성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오영진의 일기를 보면 ‘시네펜클럽’은 그 이전부터 활동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영일은 ‘씨네펜클럽’을 신문사 영화담당 기자가 중심으로 호현찬, 임영이 발의하고 오영진이 초대회장을 맡았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⁶⁾ 임영은 오영진의 <십대의 반항>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다. 오영진의 1959년 일기를 보면 젊은 영화기자들에게 오영진의 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 년 후인 1959년 4월에 이영일과 호현찬은 오영진의 집으로 찾아가서 오영진에게 그들이 만든 몇 개의 협회 회원이자 임원이 되기를 제의 했던 것이다.

2.2. 정훈자문위원 활동과 군용영화제작 기반 조성

1958년 오영진 일기의 대부분은 정훈 자문위원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견학기록문 형식의 일기에는 그가 식민지 말기에 진해 해군성을 견학하면서 썼던 「젊은 용의 날들」과 겹쳐지거나 변주되는 묘사부분이 발견된다. 식민지 시기 일본인 장교의 활달함과 조선인 지원병의 무력감이 대비되어 빚어지는 에너지의 불균형이 전후 한국 군대의 중앙과 지방으로 대립되는 폭발직전의 에너지 불균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병영을 시찰하는 오영진의 행위는 1944년 식민지 말기 진해 해군성을 견학했던 관찰자로서의 시각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오영진은 징병된 조선인 병사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싶어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 선전시나리오를 의뢰받았던 오영진은 동포인 조선인 병사들의 무력감을 해소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¹⁷⁾

16) 이영일, 『이영일의 한국영화사 강의록』, 도서출판 소도, 2002, 78면.

17) 김윤미, 『영화 <사랑과 맹서>와 오영진의 취재기 <젊은 용의 고향> 비교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10. 참고

그러나 1958년 독립된 국가의 정훈위원으로써 오영진은 병사들의 요구와 그들의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오영진은 1958년 8월 4일에서 6일까지 ‘정훈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일선 지구 시찰여행’을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동해안 강원도 지구를 희망했는데 동행은 “성균관대학교의 이선근과 복혜숙이었으나 복혜숙은 말라리아로 인해 동행하지 못했고 모든 스케줄의 detail은 정훈장교에 일임되어” 진행되었다고 8월 4일 일기에 기록했다.

“영화연출가인 김 대위의 지프차로 청량리비행장에 도착”한 오영진은 정훈국 간부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아침 9시에 ‘L-19’라는 소형 군용기를 타고 횡성 비행장에 도착한다. 여기서 오영진은 “군악대와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 최석 中將과 미 군사고문단(KMAG)의 colonel과 정훈장교의 마중”을 받고 “아내의 말대로 上衣를 가지고 오기를 잘 했다”고 일기에 적었다. 의장대와 군악대의 전면을 마주했을 때 오영진은 “이것은 환도 직후 제 5사단을 방문하였을 때 경험한 일”과 비슷함을 회상하면서 그때보다 “규모가 좀 더 클 뿐”이라고 비교한다. 휴전 직후 그는 정훈의 중대성을 느꼈는데 생사를 가리지 않고 싸우던 병사의 “정신적 공백·육체적 한가함”을 메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연대에는 라디오 한 세트일 뿐 문맹사병 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던 당시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영진은 그 차이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958년 당시에 ‘정훈’ 분야는 예산이 대폭 감소될 정도로 군대 내부에서는 미미한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오영진의 정훈자문위원 활동은 군용영화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송 中將 - 一者無識으로 보이는 거구의 야전사령관은 별 말도 없으나 不滿한 듯이- 구(舊) 반기(半期)의 정훈 예산이 1,300,000환 하던 것이 380,000환으로 대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新聞, 雜誌代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칼한 참모장은 비꼬아 말하기를 “도대체 정훈이란 무엇

인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라고 투덜거린다. 그걸 또 곧이듣고 “부전이승(不戰而勝) 운운하며 손자의 병법까지 인용하는 초대 정훈 국장 이선근 閣下! 그러나 Projector는 각 사단에 一臺式(USIS에서 공급한 것이 대부분), 라디오는 大隊 單位로 Ampf를 설치하고 있다니 환도 직후에 비하면 발전이 있다. 영화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구동성이며 民間 會社와 tie-up하여 군용 영화를 제작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다¹⁸⁾

이 당시 군용영화 제작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해 오영진이 민간영화사와 국방부와의 만남을 주선했던 것으로 그 성과를 이루게 된다. 오영진은 군용영화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해인 1959년 국방부로 정훈국장을 방문하여 “군영화 제작을 위하여 O.P.I, USIS 등과 협조할 것을 提議”하고 “정훈국 朱영화과장, 협이, 明사장, 한형모, 朴九 등 만남을 주선”한다(1959.2.9) 오영진은 이어 영화실무진과 국방부의 만남을 주선하는데, “O.P.I의 이성철, 국방부의 朱國鎬, USIS의 주동걸(朱東傑), 세 영화과장과 함께 痛飲. 영화실무 과장이 합석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왜 나는 이런 仲介역할을 자진해서 하고 다니는가?”(1959.2.10.) 라며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소견을 일기에 적고 있다. 군용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실무자와 군방부의 만남이 오영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일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정훈자문위원이었던 오영진의 중요한 활동은 민간영화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군용영화제작환경을 공고히 한데 있다.

오영진이 정훈위원으로서 군부대 시찰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한 1958년 일기에는 군부대 내부의 생활상과 민간영역에서 군의 위상과 사회상이 잘 드러나 있다. 오영진은 야전병원과 사관 클럽을 묘사하거나 양구의 12사단에 남아있는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묘사하기도 했다. 폭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1,200 고지로 외부와 고립된 곳의 군인들은 위문영화로 <청춘 쌍곡선>, <춘향전>, <풍운의 궁전>을 보았다고 오영진은 일기에

18) 오영진, 1958년 8월 4일 일기.

적고 있다. 오영진은 사병들과 사진을 찍고 사병 클럽에서 사병들과 좌담을 했다. “古兵도 있으나 新兵이 더욱 많고, 中學 以上 졸업생도 있다. 사이다와 과자를 놓고 말을 하나 별로 신이 나지 않는다. 정(釘,음식)은 좋다고 한다. 그러나 고기는 보기 힘들고 생선 통조림이 가장 좋은 반찬 이란다. 3時가 지나 그들과 good bye. 산을 내려 다른 고지로 향하다” 오영진이 가게 된 다른 고지는 “白石山 51연대”가 있는 곳으로 오영진은 이곳의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한다.

“입대한지 몇 년?” “6년입니다.” “그 전에 직업은, 농사?” “예.” 확실히 농군이다. “왜 제대하지 않소? 군대 생활이 좋소?” “예.” 그러나 누가 알 것이냐. 제대하고 갈 곳이 없는지를? 희망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중략) 젊은 송 하사가 입을 뗐다. “후방은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냉대를 합니까?” 나을 말이 나왔다. 나는 냉대 받는 일선의 휴가병들을 전차 간, 버스 간에서 늘 보게 된다. 전차표가 없이 승차했다가 萬人衆視下에서 전차 차장에게 편잔을 받는 하사관. 이것이 6개월 만에 한 번 오는 15일간 휴가에서 받는 선물이다. 송 하사의 질문이 “후방은 왜 그렇게 부패했습니까?” 묻지 않는 것은 아마 전전 장관 이선근의 낮을 봐서인지도 모른다.¹⁹⁾

오영진은 휴가를 나오는 병사가 냉대를 받는 이유가 1000환이라는 적은 휴가비 때문이지만 “40%의 보급품이 망실”되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식사가 제대로 보급되는 것도 큰 발전이라고 일기에 쓰고 있다. 돌아오는 길에 “P.I.O의 소령과 사단 정훈참모인 Kim, 두 소령은 휴가 시 여비를 5000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군의 휴가비 문제와 정훈장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군의 부패와 열악함에 대해 밤새 논의를 한다.

정훈위원으로서 오영진은 당시 군의 상황을 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하

19) 오영진, 1958년 8월 4일 일기.

고 있다. 군대가 사병들에게 운전교육 같은 직업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없음에도 소장 개인의 역량으로 하사관 학교를 건설하고 막사를 짓고, 주민을 위해 2000동의 주택을 짓는 등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단을 소개하기도 한다. “정부 예산으로 한다면 3억 환에 2년이 걸려야 하는 공사를 D. N. T만 가지고 일정 때도 못한 낙동강 물줄기를 돌리는” 도로 공사를 예산도 없이 실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O. E. C (주한 미 경제 조정관실)도 필요 없다. 삼천리 방방곡곡은 기름지고 깨끗한 땅이 되고 평탄하고 넓은 신작로가 四通八達할 것만 같다”²⁰⁾고 오영진은 일기에 적고 있다.

오영진이 강원도 쪽의 정훈시찰을 지원한 것은 조금이라도 북한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임이 일기에 한 줄 잠깐 드러난다. “동해물에 손을 담그고 사진을 찍고, Coca-cola를 마시고 빈 깡통을 바다에 던졌다. 밀물에 깡통은 어느덧 발아래로 다시 돌아온다. 멀리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저 쪽은 이북(以北)이겠지 생각하니 感慨는 無量”²¹⁾ 오영진의 감회는 전선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병사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묻는 것으로 이어지고 참전기억을 가지고 있는 탱크병의 얼굴에 드러나는 “수줍은 듯, 슬픈 듯 어쩔 줄 모르는 낭패와 자랑과 이 모든 것이 섞인 야릇한 감정”을 묘사한다.

오영진은 정훈참모단의 회합에서 “개수된 18개 도로, 인제에만 2000동 주택, 학교, 진화소, 교량 그리고 T.O와 예산 없이 만든 하사관 학교, 운전 기술학교 이것들은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제3사단을 찬양한다. 자유당에 대한 기대와 배신, 일본 관료 출신의 협소한 시야, 아시아 연맹의 반공연맹 강화에 대해서도 나눈 이야기를 적고 있다.

다음 날 8월 6일에 오영진은 춘천으로 가서 워싱턴 대사관으로 있었던 장창국 군단장을 만난다. 오영진은 그가 군단장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적고 있다. 오영진은 그에게 군인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에 신

20) 오영진, 1958년 8월 5일.

21) 오영진, 1958년 8월 5일.

선한 충격을 받은 소감을 “Army Province”라고 표현한다. 오영진은 도지사 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군대의 위력을 느꼈으며 군의 도움이라면 못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기록한다.

오영진은 마지막 시찰지역인 화천발전소를 보고 서울로 돌아온다. 서울에 온 오영진은 군용조종사가 전선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제한된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전선과 국방부 본부와의 대립과 정훈이라는 단체를 이용한 부패에 대해서도 오영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빨갱이 때문에 보류하는 글”로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1960년 4.19혁명이 불과 1여년을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쓰인 오영진의 일기에는 만연한 부패, 지방과 중앙의 불평등과 농민이 대부분인 군부대 상황 등 5.16의 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3. 1959년, 표절시비와 미국 체류기

1959년 오영진의 일기에는 <십대의 반항>과 <인생차압>의 표절시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오영진에게 1959년은 영화계에서 그의 피해의식이 가중되는 시기였으나 영화계의 젊은 비평가인 이영일, 호현찬과 함께 새로운 영화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시집가는 날>을 판매하기 위해 외교관과 미국 영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오영진이 활발하게 시도하기도 했다.

1959년에는 111편의 한국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중 이승만 일대기를 영화화한 신상옥 감독의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도 있다. 이 작품은 이승만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시기를 다룬 시나리오 <청년>이 원작으로,

1957년에 오영진이 『문학예술』 4월호에 발표했던 작품이다. 국립극장에서 <풍운>이라는 제목의 희곡으로 공연되기도 했던 이 작품의 영화화과정에서 오영진은 제작자 임화수에게 강제로 시나리오를 강탈당했고 이를 감수한 유치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일기에 드러내기도 했다.

3.1. 영화 <십대의 반항>, <인생차압>의 표절시비와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1959년에 오영진은 시나리오 <새벽에 우는 중>으로 제6회 자유문학상을 수상하는데 이는 한국영화계에서도 시나리오가 “문학의 신 영역으로 보장받았다 데 큰 의의가 있는 일”²²⁾이었다.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설정된 자유문학상 수상에 대해 언론은 “씨나리오의 문학성에 대한 찬부가 아직도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영진의 수상은 “씨나리오의 문학성이 확실”해지는 증거라고 보도했다.²³⁾ 오리지널 시나리오 작가로서 오영진의 활동은 <인생차압>이 우수국산영화후보에 오르고 <초설>의 실패로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김기영이 오영진의 기획아래 준비하는 오영진 시나리오 <십대의 반항>²⁴⁾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진은 <인생차압>으로 한국영화상 작품상을 수상한다. 그런데 오영진은 이 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시나리오상을 임희재에게 양보했다고 일기에 쓰고 있다. 오영진은 시나리오 부문에서 스스로 기권하고 “재투표 任熙宰(후배를 위한 나의 雅量)”했다고

22) 이청기, 「자유문학상 수상의 의의」, 『서울신문』, 1959.1.25, 4면.

23) 「씨나리오도 포함 제 6회 자유문학상 수상」, 『서울신문』, 1959.1.27, 3면.

24) “출연자도 황해남, 박광수, 안성기 등의 10대 소년 연기자를 중심으로 조미령, 엄앵란이 소녀 역으로 나오고 박암, 노능길, 주중녀, 황정순 등이 출연”하는데 “출발부터 흥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므로 연출을 담당한 김기영 감독도 작가적인 보람을 느끼면서 성공적인 문제작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국산영화는 올해도 풍년/ 질적인 향상여부가 주목처/ 몇편은 해외 수출/ 중견 감독진들 활동에 기대』, 『조선일보』, 1959.2.1., 2면.

일기에 적었다. 이처럼 오영진은 한국 영화계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펼쳤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영진의 작품에 대한 표절논란이 언론에 제기되었다.

“한국영화각본이 일본각본으로부터 완전 번역 혹은 번안적 번역이라는 현상은 비단 <조춘>²⁵⁾의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며 당시 발표된 대부분의 영화를 예로 들며 한국일보의 임영기자가 표절의 퍼센트를 매겼다. “유두연 각본 <잃어버린 청춘>은 40% 각본이고...(중략)... 이청기 각본 <서울의 휴일>은 일본각본 <스바라시키 일요일>의 20%번안”이라는 식으로 표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표절의심 영화를 나열했고 문맥의 중앙에 “심지어는 최근 주한 미 아세아재단이 준 각본상까지 타면서 영화계 유일의 순수인으로 지목되던 오영진 원작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각본 <인생차압>이 일본고* <장군 새벽에 죽다>의 약 20%”라고 밝힌다.²⁶⁾ 이 기사를 쓴 임영기자는 오영진이 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일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사표를 내며 해명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오영진의 작품 <인생차압>이 불란서나 일본 등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가사망, 가장례”의 구성요소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20%의 번안이라고 했으며 여원사 간행의 어느 고아의 수기인 <생일 없는 소년>도 오영진의 <십대의 반항>과 소재가 비슷하다며 오영진의 작품들은 타국, 타인의 작품들과 유사성이 많은 작품들이라고 분석하면서 다만 “몰염치한 각본가군”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다.²⁷⁾

1959년 초반 한국영화계는 급작스럽게 늘어난 한국영화만큼 일본각본의 표절시비가 불거져 나왔고 오리지널 시나리오 작가인 오영진의 명예

25) <조춘>은 일본각본 <마고로고>(애십)의 90% 표절로 문제 제기되었다.

26) 임영, 「몰염치한 각본가군/<인생차압>, <오! 내 고향>도 한 몫/ 외국모작물이 수도룩」, 『한국일보』, 1959.3.8, 4면.

27) 임영, 「모작과 모작적 창작과 우연유사/ 오영진 씨에게 보내는 글/ 취재기자 입장에서」, 『한국일보』, 1959.5.1, 4면.

에도 문제가 되었다. 오영진은 신문에서 언급되기 이전부터 자신이 표절 시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월 9일의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아침. 김요섭 군이 와서 성필이가 ‘實活’誌社에 와서 ‘십대의 반항’에 자기 작품 ‘생일 없는 소년’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呼訴하더라는 것이다. 내가 키우려고 하던 픽포켓(소매치기)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신세. 슬프다. 나의 敵手들은 좋은 誹謗거리라고 떠들며 좋아하며 100% 성필의 허언을 이용할 것이다. 아! 쓰리꾼은 최후까지 쓰리꾼이어야 하는가? 그들을 계도 하려던 내가 어리석은 자이었는가? 모든 젊은 **사업가가 한번은 봉착하는 슬픔이며, 환멸이며 **일지도 모르는 성필의 背信 (1959.1.9)

시나리오 작가협회에 대한 나의 간단한 논평이 상당한 파문을 던진 듯. 이상한 공기를 느끼는 요즈음.(1959.1.10)

1959년 오영진의 일기에는 표절시비와 그가 비평가로서 1958년 12월 31일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한국영화계에 가한 비평의 여파로 시작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해 일어날 4.19 혁명직전의 사회적 불안감을 감지하는, 오영진의 예민한 감각도 기록되어 있다. 오영진은 사상계주최로 신춘 문화 방담회에서 나왔던 “신보안법”에 대해 “쥐잡으려다 독 깨치는 愚法”이라고 쓰며 신문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신문의 고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허위보도로 조민당은 몇 번 피해를 입었고 요즘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이 공격의 화살을 던진다. 이 화살은 연말 동아일보에 발표한 단문과 사상계 12월 호에 발표한 ‘중이 울리는 새벽’ 이후 더욱 눈에 띄고 감지된다(중략) 신보안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무지감의 진공상태, 허탈의 상태는 가장 위험한 것이다. 보안법이나 경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1959.1.20)

오영진은 월남하고 난 후 충격을 입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시나리오 <새벽에 울리는 중>으로 제6회 자유문학상을 수상한다. 그와 같이 수상했던 사람은 “마해송(아동문학-모래알 고금), 柳周鉉(소설-언덕을 향하여)”인데 오영진은 신태양사를 매우 微妙한 회사라고 적고 있다.

‘십대의 反抗’을 표절이라고 떠들게 하여 성필에게 公開狀을 쓴 것을 실으라고 한 것도 여기며 曹晩植 선생의 遺言이 ‘反美帝 투쟁에 靑기하라’이라는 글을 실린 것도 아마 이 잡지사인 것 같다.(1959.1.22)

영화계에서 오영진은 심사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제2회 영화 산업상 심사회에 출석하여 후배 임희재를 지원하고(1959.2.2) 조민당에 5만환을 기부하고(1959.2.2) 국제신문 여기자에게 “신문편집인협회”상을 제정하라고 조언을 하고, 시네팬 주최 오영진 축하회에서 “이봉내, 허백년의 악의에 찬 스피치”에 대해 “남의 축하회에 와서 악담을 하는”(1959.1.3) 것에 대한 서운함을 일기에 기록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오영진의 작품 <인생차압>은 아세아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 <인생차압>에 대한 표절시비는 한국일보 신문기사가 나면서 대두되었다.

누구의 모략인지 모르되 ‘인생차압(人生差押)’이 日本 古畫 ‘장군 새벽에 죽다’의 20% 번안(翻案)이라는 LY(林英)의 기사이다. 중간과 말미에는 가장 악질적인 기사가 확실히 나 자신을 공격 목표로 써어있다. 이태희 변호사에게 9시에 전화. 전후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중략) 오종식이 보낸 記者(임영)의 자백에 의하여 이 기사가 순전히 나에게 대한 허위 모략 기사임이 드러났다. 1.임영 자신이 ‘장군 새벽에 죽다’가 미국영화라는 것을 모르는 점, 또 동명의 소위 일본 고화를 보지도 못하고 그 각본도 읽지도 못했다는 점. 언제 제작되었는지 연대도 모른다. 2. 20%번안이라는 아무런

基礎도 없다는 점. 3. 일본 영화에 정통한 두 명에 의하여 얻어 듣고 기사를 썼다는 점 등 아무런 재료 없이 나를 매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다...(중략)... 신상옥, 최은희 내방. 春園의 ‘꿈’ 각색을 위촉해오다. 선금 50만원 받고 승낙함 (1959.3.9)

오영진은 한국일보에 사과문과 1천만원의 명예훼손 배상금액을 이태희 변호사를 통해 요구하게 된다. 한국일보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한 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오영진은 로타리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을 ‘표절작가’로 보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거나 김승호가 내방하여 <구름은 흘러도>의 각색 위촉을 한 것도 (1959.3.11) 다음날에 거부하기도 한다.(1959.3.12) 이태희씨에게 소식이 없자 서울신문 사설에 <인생차압>이 변안작품으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기록하며 기소(起訴)하는 길 밖에 없음을 밝힌다(1959.3.14) 오영진은 이태희 변호사에게서 한국일보가 사과문을 게재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지만 사과문이 실리지 않게 되자 이태희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고 동아, 서울, 조선, 국회문교위, 외무부 공보관 등 여러 기관에 <인생차압>에 대한 표절시비 반박문을 배포한다.(1959.3.17) 오영진은 이 사건을 김흥모(金興模) 변호사에게 위임하고(1959.3.19) 아세아 재단에서 아미타씨 작품에 <장군 새벽에 죽다>라는 작품은 없고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제목이나 스토리의 작품도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데 이를 전한 사람은 한국일보 기획위원이라고 오영진은 일기에 적고 있다. 이에 오영진은 김흥모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1959.4.2) 이러한 와중에 오영진은 이영일, 호현찬의 방문을 받게 된다.

이 두 친구가 오면 반드시 느끼고 **하는 점은 不安. 이것은 임영의 ‘인생차압’ 기사가 있기 전부터의 이상한 直感的 感傷이다. 그들은 과연 적인가 동지인가? 확실히 동지가 아니 것만은 사실이다. 시네-펜을 만들고

나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러고도 임영을 그리 악평하지 않고 가끔 용건을 가지고 來訪하는 이 두 젊은 기사를 나는 어느덧 경계하게 됐다. **회원 **와 회원 **을 提議, 전자로서는 이규환, 안중화 등 ***와 홍* 등. 전자를 VETO하고 후자를 OK하다. 불쑥 또 하는 말이 ‘10대의 反抗’이 ‘생일 없는 少年’과 흡사하다는 말이 세간에 떠돌고, 이 말을 유포하는 자가 역시 임영이라고 아주 친절스럽게 뉴스를 알려준다. 기가 막힌 노릇. 그들은 항상 뒤에서만 총을 쏜다. 임영을 조종하는 자는 과연 누구? 부산 갈 때 車中에서 강이 말하듯이 李靑東. ***?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뒤의 인물은? Invisible men이 궁금하지만 나로서는 당분간 모를 것이다. 이영일과 호현찬의 위치가 나와의 距離는? 마치 수수께끼나 PUZZLE 내지 탐정소설을 푸는 일 같다. 머리가 아프다(1959.4.4)

오영진은 그를 찾아오는 젊은 기자들을 의심하면서도 그들과 협력하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다. 김성필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오영진의 피해의식은 이후 젊은이에 대한 경계로 나타난다. 이 시기 복잡한 상황에서 오영진은 <꿈> 각색을 신상옥과 계약한 기일에 끝내고(1959.4.14) 홍성기 감독이 제의한 <유정> 각색을 위탁받는다(1959.4.13) 그럼에도 1959년은 오영진에게 영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한 해가 되었다.

領事館으로 해서 Trade Center에 가서 최 영사를 만나다. ‘10대의 反抗’ 거의 가망이 없다. 최 영사도 매우 냉정하다.

서울에서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의 광고가 대대적이다. 나의 작품은 완전히 도둑을 맞았다. 그러고도 말 한 마디 못 하고 나는 New York 에 있다. 세상이 이래서 되는가. ‘10대의 반항’은 결국 실망. ‘인생차압’은 한국일보의 모략 기사. ‘청년’은 도둑맞고, 20여 년간 써 온 논문도 동호근(董互根) *에게 도둑맞고, 다음 달 잃어버릴 것은 무엇인가. ‘청년’의 제작자 임화수는 김희갑에게 폭행으로 구속되었다고, 이정도 가지고는 나의 분함이 가지지 않는다. 최태운(원작), 이정선, 임해직(소위 각색)이 밋다. 이

렇게도 지조가 없을까. 유치진의 監修도 밋다. 이래야 하나? 돈이 그렇게도 필요해선가? 과연 너는 무엇을 감수! 했는가? (1959.12.8)

오영진은 1959년 9월 1일 미국 뉴욕에 도착하여 12월 31일까지 미국에서 생활한다. 이 시기 오영진은 미국에서 국내영화계의 소식을 듣고 불편한 심경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 오영진의 시나리오를 원작으로 한 것임을 아는 이들은 임화수제작자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오영진은 이를 감수한 유치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느꼈던 것 같다. 오영진은 결국 김흥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십대의 반항>에 대해 표절기사를 실었던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500,000환”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11.11) 오영진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브로드웨이의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영화를 관람하고 자신의 작품인 <시집가는 날>과 <십대의 반항> 등을 소개하기 위해 활동한다.

3.2. 미국체류기- 브로드웨이 진출 시도와 성화저작권 문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오영진은 한국영화를 소개하는데 영향을 주는 찬보 맥카시(Chanbo McCarthy)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오영진은 맥카시(McCarthy)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주에 연도 회의를 하여 영화 교류의 문제, 또는 선택도 하겠으니 참석하라”는 답변을 듣는다. (1959.9.16.) 오영진은 아파트로 직접 자신을 찾아온 화가 부르노(V.Bruno)가 한국사회에서 맥카시(McCarthy)를 도와 일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기에 적고 있다. 그는 “McCarthy 씨는 군인이며 한국 사정에도 통달하고 있겠지만 문화면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옛날 도자기나 까치동저고리, 아리랑 타령이 아닌 훌륭한 소설, 영화, TV 등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것”을 소개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서술하고 있다.(1959.9.17.)

그는 “Stern’s에서 Korean singer와 dancer가 출연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기도 하는데 줄리어드 학생으로 알려진 한국여가수와 무용가의 매니저에 대해 “korean에 출전하였다는 veteran. 의정부와 서울을 왕래한 G.I”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영진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도움이 앞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McCarthy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적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한국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데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영진의 일기에 나타난다. (1959.9.22.)

오영진은 자신의 작품을 미국에 소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오영진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본국 정부에 요청을 하여도 여기에 보일만한 필름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최영사관의 말을 듣고 “Cultural attache(문화담당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서기관에게 영화 <시집가는 날(Wedding Day)>을 며칠 동안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9.24) 그것을 가지고 “korean pietism”에 흥미 있는 영화관계인을 만나 판매를 시도한다.

12:00 (중략)그래서 16mm로 된 Wedding Day를 가지고 어청어청 뒤따라 나서다. 2,30분간을 오다가다 하고나서 Film이 무거운 짐이 된다. 옛날 Paramount의 studio였다는 곳. 지금은 Army의 signal corp에서 사용한다는 것. 영화 관계인이라는 Korarin(?)을 기다리는 동안 늙은 scenario writer와 이야기를 주고받다. 한동안 RKO에서 일했다는 白髮의 writer. 현재는 주로 lecture를 가진다는 것. (중략)

영사실에 들어가 Wedding day를 영사해 보다. 성과는 別無神通. 다시 무거운 print를 들고 Times Square에서 good bye하고 집으로 돌아오다. Wedding day를 musical로 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다시 adaptation 하기가 매우 귀찮지만! Adaptation 또는 (중략). - 이런 일은 거의 사무에 준한다. 특히 자기 작품을 자기가 스스로 adaptation 한다는 것은 완전히 돈을 위한 office work와 마찬가지로

가지. Creative 한다는 기쁨은 3/10. 事務라는 고역은 7/10. 7:30 P.M. Bed.²⁸⁾

Hausmann 씨의 말에 의하면 Hollywood Writer Union의 strike(9월 1일)는 아마 Writer 측의 패배로 돌아간 모양. Producer는 작가도 하룻밤에 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마치 star를 debut 시키듯이! U.S.는 요즘 strike boom! Steelworker는 **週 계속.²⁹⁾

영화 <시집가는 날>을 판매하려는 오영진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Wedding day>를 New York 학생회에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South Gleinot의 학생회에도 빌려주고자 결정한다. 단 비상업용으로”라고 10월 5일 일기에 적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최한 <시집가는 날(Wedding day)> 영화회의 상연을 보러 가지만 영화는 프로젝트의 고장으로 상영되지 못한다. 오영진은 “Bruno 친구 집에 가서 Asia의 story를 musical, 그밖에 형식으로 Broadway에 소개”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Asia의 구비전설 이야기에는 서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면 “commercial하게도 성공하고 Asia의 theatre play를 자극하는 일도 되고 아주 일석이조이다. 2:30 A.M. on ”라고 일기에 쓰고 있다. (10.10) 이날을 계기로 오영진은 <시집가는 날>의 뮤지컬 각색을 실행하게 된다. 오영진은 뉴욕에서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면서 다음 작품을 구성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Some Like It을 변안하여 훌쭉이 똥똥이”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일기에 기록했다(10.12)

10월 30일 금요일

General McCarthy와의 약속대로 10:00 A.M.까지 Korea society로 가다. (중략)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 앞에 USIS에서 빌려온 김일@의 print가 두 장 놓여 있을 뿐이다. 낮익은 얼굴이 office에 있다 하고 보았더니 Van Fleet 장군이

28) 오영진, 1959년 9월 24일 일기.

29) 오영진, 1959년 9월 30일 일기.

다. 20세기-FOX와 연락하여 Korea를 무대로 한 영화를 찍고 싶다는 것. 그 생각만이야 가상이지만 show business와는 천리만리 밖에 사는 이 영감들에게 어느 정도 實踐能力이 있을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일. 시집가는 날을 찍으라고 권하고 싶었다. 자기 작품을 자천하는 것도 쑥스러워 가장 무난한 추천전을 추천하고 나오다. 도무지 이 영감들의 문화 사업이란 어떤지 서툴기 짝이 없다는 인상. 나올 때 McCarthy 영감이 여름내 나를 찾았다는 소리. -이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나를 정말 찾았으면 telephone 하나만 가지고도 넉넉히 연락되었을 것이다. 오는 월요일에는 다시 틀림없이 연락하여 만나자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영사관에 들러 국내 신문을 보다. 매우 친절환 관원들. 국내 정세는 別無神通.³⁰⁾

맥카시와의 만남에서 오영진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오영진은 콜롬비아사로 루시의 소개편지를 가지고 찾아가게 된다.

11:00 A.M.

다음 약속인 711 Fifth Ave.의 Columbia 社로 가다. Production 관계인 Mr.Mamaled를 만나서 Rossi의 편지를 전하다. Study 한 뒤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것. 그의 말에 의하면 Columbia Francais의 distribution **의 Jaques Berline이나 Production 관계의 Claude Ganz(지금까지 M. Rossi가 Paris에서 contact 한 사람에게서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것이다. Script 자체도 모르고 있다. 英譯 copy 'Au Pays du Matin Calm'을 그에게 두고 12:00 P.M. 退去.³¹⁾

그러나 콜롬비아사에서도 오영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Au Pays du Matin Calm)>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는 연락을 한다. 대본을 완성한 뒤에 두고 보자는 콜롬비아사의 이야기를 오영진은 감정 표현 없이 사실만을 기록한다. 그날 저녁 오영진은 오프 브로드웨이로 아내와 연극

30) 오영진, 1959년 10월 30일 일기.

31) 오영진, 1959년 11월 11일 일기.

을 보러간다.(11.17) 오영진은 카네기 홀의 발코니에서 레오나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이루어지는 뉴욕 필하모니의 연주를 듣기도 하며(11.26) 뉴욕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거의 매일 관람하거나 출판된 대본을 읽었다.

4개월에 걸친 오영진의 미국 체류목적은 사실은 이광혁 장로의 성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던 에반스(Evans)를 만난 오영진은 백인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일기에 길게 토로한다. 그는 뉴욕에서 만났던 택시기사나 호텔보이의 불량스러운 태도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에반스의 드러나지 않는 교묘함에 더욱 심란한 감정을 일기에 기록한다. 그러면서도 오영진은 그 날의 만남을 일목요연하게 묘사한다.

Evans의 Hobart Road 11번지는 외관만으로도 굉장한 저택이지만 내부 장식은 호화찬란하다. 많은 중국 器皿, 가구. 중국에 오래 있던 선교사인 가?...**(중략)**...목각의 병풍. Chest 위에 오늘을 위하여, 그리고 아마 오늘만을 위하여서인지도 모르는 이*혁 장로의 사진. 이윽고 나타나는 Evans 悠容한 몸가짐. 중국의 대인 같은 풍채. 白髮白髯, 紅顏의 威風이나 그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약마른 그 무엇이...**(중략)**...well! 4:00.M,rk 지나서 C.C.C.의 요구를 듣다

1). 지금까지 몇 매 찍어서 몇 매 팔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것은 수요일에 편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保管하고 있는 聖畫는 마태 600매, 누가 600매, 마가 600매를 월요일에 New York 나의 주소로 보내주겠다. 그 밖에도 창고에 山積되어 있는데 처분되는 대로 보낼 것이다. **(중략)**

2)저작권 등록에 관하여

나의 문 등록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
E의 답 나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문 언제 했는가?
답 자세히 모르겠다.
문 자세히가 아니라도 좋다. 어느 해에 했는가?

답 그것조차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알겠다.
문 왜 당신 이름으로 했는가?
답 판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문 왜 그 사실을 오늘까지 알리지 않고 있는가?
 이*혁 장로는 아직도 저작권이 등록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답
문 등록된 등기를 당장 우리에게 넘겨줄 용의가 있는가?

답 (알아들을 수 없었다. 표 씨의 말로 그 내용을 적으면, print한 그림이 아직 산적해 있으니 그것이 처분되기 전에는 자기 투자에 관계되는 것이니, 당장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 그러나 Evans는 단호히 *言한다.) Copyright에 한해서는 변호사와 의논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

(중략)

표의 질문 Original copy는 돌려줄 수 있소?
E 누가복음(뒤에 와서 요한복음이라고 자신이 정정)은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소. 저기 이층 벽에 걸려있소
나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E 요한복음밖에 아니 받았다.
나 이 장로의 편지에 의하면 두 개는 1956년에 보냈다고 하는데..
E 아니 받았다.
나 알겠다. 다시 알아보겠다(그러나 속으로는 이 장로가 거짓말을 하겠나? 이 도둑둑야. 나는 아주 양순하고 조용하게 그가 대답하기 힘든 결정적인 말은 우선 피해 주었다.) Chest 위에

있는 이*혁 장로의 사진을 가리키는 Evans. 이 장로의 사진이 마치 죽은 사람의 사진 같이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에 point는 등기를

- 1) Evans 이름으로 한 것
- 2) Original copy(누가와 마태)가 도중에 없어진 것.
또 오늘의 면담을 통해서 Evans가 뇌이고, 뇌이고 또 뇌인 대목.
- 1) 내가 투자해서 제작한 모든 copy를 C.C.C.에게 기부하겠다. 그러나 이 기부는 Through Mr. Oh, 당신을 통해서 하겠다.
- 2) 당신이 Akansas 의 Magee co.와 계약한다고 하지만 American business man 은 절대로 주의하여야 한다. tricky하다. Yankee? You know? (E는 Wels' 출신의 American이란다.)
- 3) 나는 어디까지나 당신과(Oh) cooperative 하겠다.

그리고 Mr. 표에 대하여 상당한 호의를 보이며 당신과 나와 서로 가끔 만나자. 당신의 모든 일 처사에 Mr. Oh보다 능숙해 보인다. Brother 이니 무엇이니 포옹(Mr. 표를)하दा시피 하는 케케묵은 gesture. 나는 그냥 E가 측은해만 보인다. 문간에서 E에게 두 개의 original copy가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terribly awful' 이라고 말하다. E는 Mr. 표와 다시 만나 잔다.(부탁하दा시피) Dr. Tung의 차로 Boston 향. 때는 벌써 5:30 P.M.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한 셈이다. Tung 씨는 차내에서 Evans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업 많이 했고, honest하고, 그냥 그를 추켜세우는 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한다. 나는 "I hope so!, I hope so!"를 크게 반복할 뿐이다.

나의 인상과 결과는 이상과 같다. 나는 이제 C.C.C.의 treasure를 떠나 **한 사람의 reporter가 되어야 할 입장에 선 듯하다.** (강조 인용자)³²⁾

성화저작권 문제로 에반스와 대화하는 오영진의 태도에서 알다시피 그는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추측하면서 그의 감정 상태를 정비한다. 좀처럼

32) 오영진, 1959년 10월 25일 일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오영진은 상대방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질문은 피해간다. '한 사람의 리포터'가 되어야 할 입장이라는 오영진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을 격양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일기를 쓰는 그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에게 일기를 쓰는 행위는 증거를 남기는 기록의 형태로서만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일종의 거리두기이다. 오영진은 거리두기로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지만 그의 무의식까지 보호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 Evans는 왜 쫓겨나고 말았는가. Dr. Tung이 중국인이 일생을 두고 잊지 못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중략) 신의 이름을 빙자한 자가 우리들의 共益을 침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삭막한 감정. 너 잔의 하이보올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Christianity. America의 christianity가 부패한다면 그들은 멸망할 뿐이다.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혹시' 不正을 한다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追外를 당하고 말 것이다. 12:00 자정. New York 가는 버스를 타다.³³⁾

10월 26일 일요일

밤새워 Bus는 암흑의 거리를 가다. 가끔 지나치는 잠든 town. 이상한 환각. 무인의 New York City(Film)가 순간 머리에 떠오른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잘 생각도 않고 그냥 頭緒 없는 생각에 빠진다. Ugly american. Ugly american! ...중략...가난의 ugly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rich의 ugly는 이아말로 目不忍見이다. 결국 Evans가 New York으로 보내겠다는 *품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3:20 A.M. 도중의 Dinar(?)에서 coffee를 마시고 다시 출발하는 버스. 어둠을 뚫고, 아니 어둠 속을? America의 backbone은 Christianity. 그것이 썩어간다면(중략) 자꾸만 ugly american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람 좋은 이*혁, 그의 死相이 또 자꾸만 눈앞에 어린 거린다. 이상하

33) 오영진, 1959년 10월 25일 일기.

게도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한두 방울. 묘혈(묘혈)을 파는 자는 그들 자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You are burying yourself?” 5:30 A.M. 50th 8th Ave.에서 내리다. Coffee를 마시고 걷는 것이 반대방향.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New York의 동서남북..³⁴⁾

일기에 오영진이 어글리 아메리카 (Ugly american)라고 쓴 것은 이 부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오영진은 성화저작권 문제를 이광혁 장로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고 서울로 돌아가 “C.C.C.의 committee”에 보고하기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법적인 힘이 없어서 소송도 벌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오영진은 뉴욕에서 변호사 윌리엄 필립(William Philip)에게 소송을 협의하고 의뢰하지만 이광혁 장로의 권유로 소송을 포기한다.(11.30)

오영진은 일기에 자신의 행적을 시간단위로 기록하기도 했는데 솔로몬 구겐하임 박물관이나 네모 극장과 영사관을 오가며 적어도 하루에 한편의 영화나 연극을 관람했다. 도서관에서 북한의 희곡과 소설을 찾아서 읽기도 했고 콜롬비아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 하군의 초대를 받아 유학생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영진과 그의 아내는 <생일없는 소년> 수기를 썼던 고아 출신인 김성필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하군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11.9) 이러한 와중에도 오영진은 <시집가는 날>의 뮤지컬 작업을 실행한다. 오영진 일기에서 <시집가는 날>에 대한 작업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2일 목요일

David Buttoph 10:00 A.M. 내방. 하루 종일 ‘Wedding Day’에 대하여 토론. 귀국이 또 늦어지는가 보다.

12월 5일 토요일

‘Wedding Day’의 musical로서의 adaption. 밤에 Broadway로 가서 Fifth Ave. 장성환과 우리.

12월 7일

留家. Wedding Day’의 adaption.

12월 9일 수요일

‘Wedding Day’ Act I 脫稿(草)

12월 19일 토요일

‘Wedding Day’의 synopsis(영어 type *) 30 ao 완결함. Rogers Hammstein ‘South Pacific’의 text를 읽으며 오래간만에 relax. 그리고 보니 지난 數週 동안 일기는커녕 신문조차 변변히 읽지 못 했다.

12월 22일 화요일

이광혁 장로에게서 다시 편지가 오다. Evans에게 **하라고 했으니 다시 Magee 회사와 교섭하라는 내용. 1월 11일에 떠나게 되면 불가능이다. 더 있으면 돈과 visa의 연장이 필요하다. David 오다. Act Two. Scene 2까지 문장을 고치다. 나의 표현은 나 자신만 아는 法. 가장 알기 쉬운 영어로 고치다. Synopsis는 완성되었으나! 아직 producer는 나오지 않는다.

오영진은 <시집가는 날>을 뮤지컬로 완성해가면서 뉴욕에서의 생활이 주는 피로감을 스스로 극복한다. 뉴욕에서 그는 ‘유학생의 밤’에 번갈아가면서 초대받으며 영화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소련과 미국의 관계, 아시아 국가의 군부독재, 북한 조선문학의 조류를 살피면서 그가 막연히 느꼈던 한반도의 운명을 뉴욕에서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게 된다.

34) 오영진, 1959년 10월 26일 일기.

Holy Picture, Musical script. 모두가 미해결이다.

Broadway의 Samiel Dolbeer 옹을 만나다, Mr. Bellows의 先輩라는 이 노인은 과연 U.S.A. mining enterprise의 pioneer인지도 모른다. Korea에 대한 관심도 깊다. 外資 導入과 지하도***을 위하여 선진국의 technical한 원조와 또 필요한 외국의 지원-공동 경영이 필요하다는 뜻을-나의 전문도 아닌 방면이지만 강조하다.³⁵⁾

오영진이 미국에 온 목적이었던 성화저작권 문제와 브로드웨이 진출 문제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 <시집가는 날>의 뮤지컬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제로 작업을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 뉴욕의 다양한 공연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한국에 대한 기술적인 문화 지원과 공동경영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미국의 거대한 문화자본으로 진입하려는 오영진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지만 오영진은 브로드웨이와 영화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했고 그 성과로 <시집가는 날>에서 뮤지컬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1959년 마지막 날에 오영진은 “뉴욕의 94번가 극장에서 3시간 45분간 상연되는 De Mille의 <The Ten Commandments> 관람”하고 프랑스 식당에서 그의 외국인 친구 “Connie, Mel과 함께 앉아 각자 1959년의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영진은 그의 일기에 “이제는 어찌는 수 없이 1960년이로구나! 어찌는 수 없이! 어찌는 수 없이! 어찌는 수 없이 이제는 새로운 decade에 접어들었다”라고 적고 있다. 1960년 1월 11일에 오영진은 미국 뉴욕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해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의 삶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35) 오영진, 1959년 12월 30일 일기.

4. 결론

오영진이 1958년 7월 17일에서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쓴 일기에는 당시 한국영화계의 실상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정훈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 문화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영사관과 유학생의 생활상, 브로드웨이의 극장과 영화사, 미국 선교사와 한국기독교와의 종교 사업에서 벗어지는 이권다툼 등에 대한 실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사실관계의 기록은 오영진의 활동영역이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오영진의 일기에는 한국 영화계와 문화현실 분야의 사실관계 여부를 해명하거나 보완하게 하는 주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영진은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의 국제정세에 관한 뉴스를 일기에 정리하면서 한반도의 입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석하거나 브로드웨이에서 본 공연의 배우와 영화감독이 전 작품에서 어떻게 나아졌는지도 기록했다. 그는 매일 공연을 보거나 대본을 읽었으며 영어로 자신의 영화 시놉시를 작성하여 콜롬비아 영화사에 직접 제출하는 등 미국에서의 진출을 시도했다. 비록 오영진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지만 뉴욕에서 오영진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발견하고 <시집가는 날>을 뮤지컬로 각색하게 된다.

또한 오영진은 한국영화계에 만연한 외화 표절 문제를 제기했는데 역으로 표절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화와 한국영화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표절의 근거에 대한 자료부족과 표절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 이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계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 작가로서 오영진은 시나리오를 문학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오영진은 일기를 “인생을 위한 증빙서류(證憑書類)”³⁶⁾ 로 여기며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한 사람의 reporter’의 입장을 취했다. 그는 공적인 행사의 진행과정을 일기에 기록했으며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당대 현실이념에 맞게 작성하여 일간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했다. 일기에 쓴 공적 기록 사이로 오영진의 사적 감정이 분절된 상태로 기록되었으나 이 시기에 오영진은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서술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 고뇌가 들어있지 않다고 썼는데 그 이유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 외부의 문화를 전유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오영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분기점이 오영진의 일기에서는 1958년에서 1959년까지다. 후속연구로 이 시기의 전과 후에 기술된 오영진의 일기연구가 보강된다면 한국영화연극계의 문화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오영진, 일기자료 (1958년 7월 17일- 1959년 12월 31일)
이근삼, 서연호 편, 『오영진 전집』1-5, 범한서적주식회사, 1989.

2. 단행본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민족정체성』, 문학과 지성사, 2002.
김윤미, 『드라마와 민족표상』, 연극과 인간, 2013.
_____, 『드라마, 내셔널 서사, 문화콘텐츠』, 일송, 2013.
김 화, 『이야기한국영화사』, 하서, 2001.
백현미, 『한국 희곡의 지평』, 연극과 인간, 2003.
_____, 『한국 연극사와 전통 담론』, 연극과 인간, 2009.

36) 오영진, 1959년 1월 1일 일기.

유민영, 『한국 현대 희곡사』, 기린원, 1988.
이영재, 『제국 일본의 조선 영화』, 현실문화, 2008.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1958-1961)상』, 공간과 사람들, 2008.
위르겐 슐름볼 편, 박승중 외 옮김,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2001.

3. 논문

권오만, 『오영진의 3부작에 대하여』, 『국어교육』, 18-20 합병호, 1972.
권두현, 『해방 이후 오영진 작품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상허학보』 제27집, 상허학회, 2009.
김옥란, 『오영진과 반공.아시아. 미국, 이승만 전기극 <청년>, <풍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김윤미, 『제국과 로컬, 오영진의 조선영화론』, 『드라마, 내셔널 서사, 문화콘텐츠』, 일송, 2013.
_____, 『오영진 드라마에 나타난 민족 표상연구- 오영진의 영화론, 시나리오, 희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1.
_____, 『오영진의 1940년대 초기 시나리오에 나타난 ‘민속’의 의미』, 『현대문학연구』, 3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_____, 『영화 <사랑과 맹서>와 오영진의 취재기 <젊은 용의 고향> 비교연구』, 『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서연호, 『오영진의 작품 세계』, 『한국연극론』, 대광문화사, 1976.
이미원, 『오영진 작품 세계와 민족주의』, 『한국연극학』 제14호, 한국연극학회, 2000.
이상우, 『월경하는 식민지 극장: 다이글로시아와 리터러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_____, 『오영진의 글쓰기와 민족주의: <진상>과 <한네의 승천>의 관계』,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이주영, 『오영진의 역사극 연구』, 『어문논집』, 제65집, 민족어문학회, 2012.
이효인, 『윤봉춘 일기 연구- 1935-1937년 윤봉춘 일기를 통한 조선영화계의 분석』, 『영화연구』 제55호, 한국영화학회, 2013.
최승연, 『오영진의 <맹 진사 댁 경사>개작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1집,

2005.

최은옥, 「<시집가는 날>의 현실인식 재고」, 『한국극예술연구』 제12집, 한국극예술학회, 2000.

황호덕, 「피와 문체, 종이 위의 전쟁 - 중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덧씌어진 일기장을 더듬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동악어문학회, 2010.

양승국, 「전통과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두 축의 아이러니」, 『문학사상』, 7월호, 통권 201호, 문학사상사, 1989.

Abstract

The study on diaries of Oh Yeongjin

- A Review of Korean Film 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Youngjin Oh's Diaries from 1958-1959 -

Kim Younmi

In this study I intended to review the diaries recorded by Oh Yeongjin (1958.7.17~1959.12.31). The Period from 1958 to 1959 belongs to the heyday of Korean films. Also Oh Yeongjin who was active as a film critic and a writer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period. In that time, he actively worked in the center of culture and politics and got into details of these various experiences in his diary. Therefore, his diary is a crucial text which can give new perspectives to society, culture and politics as well as Korean films.

In 1958, it records the details of his works, building the foundation of global network and military film-making through acting as Asia Foundation consultant. In his diary, there is the draft of the letter which would be sent to Asia Foundation, suggesting that “works that plays in Asia Film festival should be dubbed into the native language of the area where they are played” and “There should be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 institute for the improvement of film art and the development of tech, and collaboration.” Also in this document, there are experiences that he visited the military units and the processes building the foundation of environment of military film-making by arranging the meeting between private film agency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In 1959, it records a plagiarism scandal of <Rebellion of teenagers> and <Life of differential pressure>, legal action against it and resentments about losing the possession of

the scenario,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young man, Syngman Rhee*>. The year of 1959 was the period for Oh Yeongjin to increase his victim mentality, but this time of year was also the period that he participated to the new film movement with young critics. In addition, he records that he met Maccacy, a former military man, for the exchange of films in New York and the process of trying making the meeting with movie professionals such as the company of Columbia for selling of <*Wedding Day*>. He started musical adaptation of <*Wedding Day*> for its run on Broadway and he revealed the disappointment about Americans and missionaries during the problem-solving process of Holy Picture property.

Likewise, Oh Yeongjin recorded process of public events, and published the works based on them to a daily newspaper or magazines. However, published works were not exactly same with his documents, because his personal feelings entered into it. For Oh Yeong-Jin, diaries was more considered as an method that reach to self-awareness accepting outside language ideology than of record. With this, it can be found in his diaries that Oh Yeongjin's Political unconscious is endless culture war with the empires.

Key words : Cultural, diaries, <*Life of differential pressure*>, Oh Yeongjin, political, <*Rebellion of teenagers*>, <*Wedding Day*>

접수일: 2016년 1월 31일
심사기간: 2016년 2월 13일~2월 22일
게재결정: 2016년 3월 10일